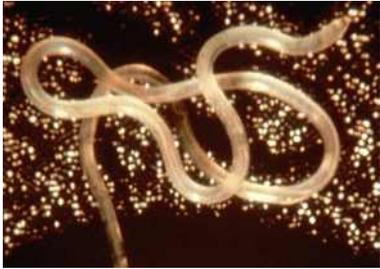


[제4급]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아. 사상충증(Filariasis)

2023.07.31. 기준

구 분	내 용
감염병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급 법정감염병 ○ 표본감시감염병
원인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림프사상충: 반크롭트사상충(<i>Wuchereria bancrofti</i>), 말레이사상충(<i>Brugia malayi</i>), 티모르사상충(<i>Brugia timori</i>) - 조직사상충: 회선사상충(<i>Oncocerca volvulus</i>), 로아사상충(<i>Loa loa</i>) 등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title=Special:Search&limit=100&offset=0&profile=default&search=Filariasis&advancedSearch-current={}&ns0=1&ns6=1&ns12=1&ns14=1&ns100=1&ns106=1, https://www.cdc.gov/parasites/lymphaticfilariasis/index.html - - 사람에게 기생하는 사상충은 9가지 종류가 알려져 있으나 6종이 병을 일으킴 - 인체의 조직이나 체강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실모양처럼 가늘고 긴 형태로 실타래같이 엉켜서 기생함 - 암컷이 태생적으로 미세사상충을 직접 낳음
병원소(감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림프사상충증: 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크롭트사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모기종: <i>Culex fatigans</i> · 집모기(<i>Culex</i>), 숲모기(<i>Aedes</i>), 얼룩날개모기(<i>Anopheles</i>), 늪모기(<i>Mansonia</i>) 등 <i>Psorophora</i>속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모기들이 중간숙주로 작용 - 말레이사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유행지에서는 늪모기(<i>Mansonia spp.</i>) ·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남해 섬 지방에서는 토고숲모기(<i>A. togoi</i>), 경북 내륙 지방에서는 중국얼룩날개모기(<i>A. sinensis</i>)가 주요 모기였음 · 동남아시아에서는 원숭이가 중요한 보유숙주임 ○ 회선사상충: 척추동물을 흡혈하는 먹파리(black f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에서는 <i>S. damnosum</i> - 중남미에서는 <i>S. ochraceum</i>이 전파 ○ 로아 사상충은 흡혈성 등에(tabanid fly: <i>Chrysops spp.</i>) ○ 보유숙주: 림프사상충과 회선 사상충, 로아사상충 모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사람 이외의 보유숙주의 역할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구분	내용											
<p>발생현황</p>	<p>[국외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림프사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시아,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의 풍토병임 - 반크롭트사상충증은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 - 말레이사상충증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 등에 유행 - 티모르사상충증은 인도네시아 동부의 섬에서만 발견 ○ 회선사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 저지대 강 유역과 중남미의 고산지대에 고도의 유행지가 분포하나 중남미보다 아프리카의 유행지가 훨씬 넓음 - 서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 이남부터 중앙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의 열대지역에 걸쳐 대단히 광범위한 분포지역을 가지며 특히, 서아프리카의 볼타강 유역은 세계 최대의 유행지임 ○ 로아 사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의 풍토병임 ○ 최근 국제적으로 대규모 투약사업을 포함한 림프 사상충 퇴치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감염률이 줄어들거나 퇴치된 것으로 확인됨 <p>[국내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초까지 제주도와 전남 도서지역에 말레이사상충 감염자가 있었음 ○ 2002년 전남 도서지역에서 2명의 감염사례 이후 국내 발생사례 없었으나 2018년 1명 신고됨 											
<p>진단검사 및 신고기준</p>	<p>[신고를 위한 진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사상충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다음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크롭트사상충증: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증상이 있다가 림프관염과 림프선염이 발생하고 만성화되면 상피증이 발생함 - 말레이사상충증: 반크롭트 사상충증의 증상과 비슷하나 더 경미함 - 회선사상충증: 피하결절, 발진, 소양감, 피부노화, 피부탄력 소실로 인한 탈장 등이 나타남 - 로아사상충증: 피하조직 내 성충의 이행에 의한 일시적 부종 또는 유주성 부종 등을 보임 - 심장사상충증: 폐 실질 내 성충의 이행에 의해 육아종 형성 등을 보임 - 피부사상충증: 결막이나 피하조직 내 성충의 이행으로 소양감, 일시적 부종 또는 유주성 부종 등을 보임 <p>[진단을 위한 검사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02 1717 1435 1885"> <thead> <tr> <th>구분</th> <th>검사기준</th> <th>검사법</th> <th>세부검사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확인진단</td> <td>검체(혈액)에서 총체 확인</td> <td>현미경검사</td> <td>도말, 검경</td> </tr> <tr> <td>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td> <td>유전자검출검사</td> <td>PCR</td> </tr> </tbody> </table>	구분	검사기준	검사법	세부검사법	확인진단	검체(혈액)에서 총체 확인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유전자검출검사	PCR
구분	검사기준	검사법	세부검사법									
확인진단	검체(혈액)에서 총체 확인	현미경검사	도말, 검경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유전자검출검사	PCR									
<p>신고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범위: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 진단한)환자 ○ 신고시기: 7일 이내 ○ 신고방법: 질병관리청으로 팩스 또는 웹(http://is.kdca.go.kr)의 방법으로 신고 * 팩스 신고 시 유선전화로 팩스 수령 여부 확인 반드시 필요 											

구 분	내 용
<p>사례조사 및 유행역학조사</p>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p>[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 이내 <p>[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주거지 시·도
<p>잠복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개월 - 림프사상충: 체내로 들어온 유충이 성충이 되기까지 9개월 전후의 시간이 걸림 - 회선사상충: 체내로 들어온 유충이 성충이 되기까지 6-12개월이 필요 - 로아사상충: 체내로 들어온 유충이 성충이 되기까지 6-12개월이 필요 ※ 만성 피부 병변은 수년 이후 발생
<p>감염경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충이 흡혈할 때 전파됨 - 매개모기가 사람을 무는 시간은 밤 10시-새벽 4시 사이 - 혈액 내 자충의 농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며 그 외 시간은 폐의 모세혈관에 모여 있음 <div style="text-align: center;"> <p>The diagram illustrates the life cycle of lymphatic filariasis. It is divided into two main stages: the Mosquito Stage (모기 단계) and the Human Stage (사람 단계). Human Stage (사람 단계): ① A mosquito bites a human, injecting a 3rd-stage larva (L3) into the skin. ② The larva matures into a sexupara (성충) in the lymphatic system. ③ Microfilariae (microfilariae) move from the lymphatic system into the bloodstream. ④ When a mosquito bites the human again, it becomes infected. ⑤ After the mosquito feeds, microfilariae migrate from the human's skin muscles into the mosquito's body cavity. ⑥ They develop into 1st-stage larvae (L1). ⑦ The 3rd-stage larvae migrate to the mosquito's mouthparts, ready for the next bite. Legend: A biohazard symbol indicates the 'Infection Stage' (감염단계), and a magnifying glass icon indicates the 'Diagnosis Stage' (진단단계). Source: https://www.cdc.gov/dpdx/lymphaticfilariasis/index.html</p> </div>
<p>임상증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림프사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림프시스템의 손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임 - 수년의 시간이 흘러 림프관의 만성 염증이 지속된 이후에야 림프부종, 음낭수종 등의 증상이 발생함 - 이런 변화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피부의 2차 세균감염이 발생하거나 림프관염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염증은 사상충으로 인한 변화를 악화시켜 상피증 (elephantiasis)이라는 독특한 형태 변화를 가져옴 ○ 조직 내 사상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선사상충, 로아사상충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하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숙주가 총체부위를 섬유조직으로 둘러싸면 종양을 형성하기도 함 - 조직 내 사상충의 성충이나 미세유충이 눈에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 장기간의 염증반응으로 실명이 되기도 함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림프사상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연산디에틸카바마진(Diethylcarbamazine citrate, DEC)와 Doxycycline을 고려함 ○ 회선사상충이나 로아사상충과 같은 조직사상충이 같이 감염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로 치료 시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치료제 투약을 결정해야 함 ○ 조직사상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 아이버멕틴(Ivermectin), Doxycycline 등의 약제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심한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치료해야 함 ○ 림프부종 등의 변화가 생기는 시기에는 이미 사상충은 죽고 난 이후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상충 치료보다는 2차 감염방지 등의 보존치료를 진행하고 환자에게 피부관리법을 교육하여야 함
환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주의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함 ○ 매개모기가 환자를 물어 감염되지 않도록 미세사상충혈증 환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함
접촉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함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 및 능동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이용 가능한 수동 및 능동면역 없음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행지역 여행자는 유행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매개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함 ○ 유행지에서 감염원이 되는 환자 및 보유숙주 등을 치료하여 매개곤충의 감염을 차단하고 매개곤충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새로운 감염의 발생을 억제함
관련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생충감염병 관리지침 ○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 표본감시감염병 사용자매뉴얼(보건소용) ○ 병원체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 ○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청. 2023년도 기생충감염병 관리지침 ○ 질병관리청. 2023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 질병관리청. 2023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4판 ○ 질병관리청. 2022년도 표본감시감염병 사용자 매뉴얼(보건소용) ○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2020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제2,3,4위험군) ○ 질병관리청/대한감염학회.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 https://www.cdc.gov/parasites/lymphaticfilariasis/index.html